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나는 새벽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4회

## 14. 창조와 하나님의 계명

2010년 7월 24일(안식일 아침)

[엡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序; 지난 시간에는 거듭난 사람은 새 언약에 거하는 사람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의 생활정신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송충이 솔잎을 먹지 않고도 산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엡4:22~24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지음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깨달음의 축복이 넘치게 도기를 바랍니다.

###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뜻합니까?

[출33:18,19]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돌을 다듬어서 시대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출34:4~6]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반포하시네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그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포하십니다.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 하심, 인자, 진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는 여호와와 이름에 대하여 말씀 드린 내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두 번째 말씀부터 여섯 번째 말씀까지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형상과는 사뭇 다른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말씀에는 도덕적 형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이 많은 도덕적 형상을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마디로 가르쳐줍니다.

[요일4:8,16]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 2.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중요합니다. 사랑은 대상을 따라 표현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지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 집을 방문할 때 아주 귀엽고 예쁜 어린 딸아이를 보면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면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목사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어릴 때 껴안고 뽀뽀를 했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주 미인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덥석 안고 양 볼에 뽀뽀를 하면 어떨까요? 본인이나, 부모가 아주 질색할 것입니다. 노인 목사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아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모양이 아니지요. 사랑은 상대를 따라 경우와 때에 맞는 표현을 해야 사랑을 참되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때와 경우를 따라 가장 합당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것보다 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 정말 지극한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요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창조해놓고 보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보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시 혼자서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 존재로 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성의 삼위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친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단독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사랑의 친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차원이 다른 사이의 사랑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동등한 인격 사이에 충만한 사랑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은 그 사랑의 성품과도 합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독처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의 확실성을 깊이 느끼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로 부부는 일체입니다.

이 사람 사이에 실천되는 사랑의 최소 상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간단히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이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라, 살인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 말라, 사기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인신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실천되는 사랑의 최소 상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것,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형편에 맞도록 아주 포괄적이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가르쳐주셨다.

### 3. 태초부터 계시하심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는 암시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창세기 2:1~3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일곱 번이나 좋았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영어로는 good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좋다고도 번역되고 선하다고도 번역됩니다. 우리말 구역 성경에는 “좋았더라”고 번역하지 않고 “선한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이 넘치는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제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시작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1~25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결혼시키는 내용이며,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 사랑에 대한 강렬한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2장의 끝 부분은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사람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훗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반포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으로 반포하셨으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으로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생 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며, 사랑하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것을 아니지만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요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계명은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정 있게 지내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사랑이며 계명의 집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생태이기 때문에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사상과 의식이 바로 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면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새 계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일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애청자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푸셔서 이 사랑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신 분이지요.

#### 4.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57:15]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는 땅에 주신 성소의 원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원형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땅에 있는 모형을 볼 때 원형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에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는 사람들이 주로 법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로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돌비 곧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써 주신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의 보좌 밑에 십계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하나로 통합했을 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사랑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러나 포괄적으로 기록하여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요즘 출판되는 많은 해설 성경들에도 표지 뒷면에 십계명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요 영원한 원칙입니다. 곧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이고(고후 6:16)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가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그의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 주셔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으사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할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런 계획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7~19)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버리면 하나님의 보좌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데 천국에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의 대조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입법한 것을 버리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약4:11,12]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윗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경시키거나 버리지 않은 것을 사람이 감히 변경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지요? 태초에 지음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계명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사상과 의식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고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예수님처럼 드러내는 삶을 이루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청자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보좌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계명 곧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0. 5. 30.(일) 8:16pm.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